明治天皇御製謹譯[[1]](#footnote-1)

　　　　　　　　正述心緒

よもの海みなはらからと思ふ世になど波風のたちさわぐらむ

　천핫백성이 모다 동포형제로 살세상이 어쩧다 바람물결 이리로 설레는고

　　　　　　　をりにふれて

久方のあめにのぼれるこゝちしていすゞの宮[[2]](#footnote-2)にまゐるけふかな

　높고 거륵한 하늘에 오르옵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즈의 神宮에 뵈옵는 오늘이어

　　　　　　　神祇

神垣に朝まゐりしていのるかな國と民とのやすからむ世を

　검님뫼신데、아침에 절하삷고、비옵는 말슴、나라와 백성들이、태평하올 세상을

　　　　　　　思

國民のうへやすかれとおもふのみわが世にたえぬ思なりけり

　우리 백성이、평안하여지라는 오직 한 생각、평생에 끄님없는 나의 생각이랏다

　　　　　　　折にふれて（明治三十七年日露戰爭中）

夢さめてまづこそ思へ軍人むかひしかたのたよりいかにと

잠이깨어서、맨처음 생각기는、우리군사들、나아가는 곳에서、오는기별 어떤가

おのが身にいたでおへるもしらずしてすゝみも行くかわが軍びと

　제 몸이 맞아 중한 상처 생김도 모르고서리、앞으로앞으로만 나아가는 내군사

戰のにはのおとづれいかにぞとねやにも入らずまちにこそまて

　전장으로서、무슨 기별 오나고、밤이 깊도록、자리에 들지않고 고대고대하여라

石だゝみかたきとりでも軍人みをすてゝこそうち碎きけれ

　돌로 쌓은、굳고 굳은 城壘도、우리 군사의、몸버려 부듸쳐서、깨트려내었어라

久しくもいくさのにはにたつひとは家なる親をさぞ思ふらむ

　오랜세월을、전장에서 싸호는 우리 군사들、고향에 둔 어버이、생각간절할 것을

はからずも夜をふかしけりくにのため命をすてし人をかぞへて

　어느사이에、한밤을 새었어라、나라위하야、목숨바친사람의、수를 세이느라고。

　　　　　　　　述懷

末つひにならざらめやは國のため民のためにとわがおもふこと

　마춤내에야 아니될줄 있으리、나라위하야 백성을 위하야서 하는 나의 생각이

　　　　　　　　民

國の爲いよいよはげめちよろづの民もこゝろをひとつにはして

　나라 위하야、힘쓸 때는 왔어라、오늘야말로 만백성이 마음을 하나로 모도아서

　　　　　　　　誠

とき遲きたがひはあれどつらぬかぬことなきものは誠なりけり

　비록 이른수 더듼 수는 있어도、반듯이 한번、일우고야 말기는 참된 마음이러라

　　　　　　　　をりにふれて

思ふことつらぬかずしてやまぬこそ大和おのこのこゝろなりけり

　마음먹은일、일우지아니하고는、말지않는 이、야마도 사나이의、마음이라 하더라

　　　　　　　　蝸牛

世のさまはいかゞあらむとかたつぶりをりをり家を出でて見るらむ鄰

　세상형편이、어떻게 되는가고 저달팽이는、때때로 집을 나와 돌아보나 보도다

山家鄰

谷川のおなじ流れの水汲みて鄰へだてぬみやまべのさと

　골짜구니에、흐르는 한시내의、물길어먹고、너나 없이 사노나、산골의 마슬[[3]](#footnote-3)사람

　　　　　　　　鶴思子

まへになりうしろになりて雛まもるたづの心のあはれなるかな

　앞을 섰다가、뒤로도 따르면서、새끼 지키는、두루미의 마음여、가엽기도 한지고

歌

まごゝろをうたひあげたる言の葉はひとたびきけば忘れざりけり

　속마음을、그대로 읊어내인 참된 노래는、한번 들어 다시는、잊혀지지않더라

　　 　香山光郎　謹譯

1. 『新時代』1941年9月 [↑](#footnote-ref-1)
2. 五十鈴宮。伊勢神宮のこと。 [↑](#footnote-ref-2)
3. 마을の古語 [↑](#footnote-ref-3)